

새터민 동료상담자의 상담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김 영 경[†]

연세대학교

김 현 아

열린사이버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새터민 동료상담자의 상담경험을 질적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새터민 동료상담자 경험이 있는 새터민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 표집방법은 눈덩이 표집이다. 자료분석은 Lieblich, Tuval-Mashiach, & Zilber의 내러티브 분석법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새터민 동료상담자들의 한국에서의 상담경험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이야기 주제들을 범주화 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내러티브 분석 방법은 3명에 의한 삼각 검증법으로 진행되었으며 분석한 내용은 9명의 면담자들에게 보내어져 재확인과 승인을 받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를 근거로 새터민 동료상담자의 상담경험을 분석한 결과 8개 범주, 23개 하위영역, 61개 개념이 도출되었다. 8개 각 범주는 동료상담자가 바라본 새터민 상담에 대한 인식, 동료상담자의 자세와 역할, 동료상담자로서의 자격요건, 새터민 동료상담 issue, 새터민이 선호하는 상담, 새터민 동료상담의 효과향상을 위한 선행조건, 동료상담자가 생각하는 남한상담자의 과제였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 후, 연구의의와 추후 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새터민, 동료상담, 내러티브분석, 질적 연구

[†] 교신저자 : 김영경, 연세대학교,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Tel : 02-2123-3220, E-mail : kykrose@hanmail.net

2009년 3월 현재 새터민 총 15,836명이 국내에 입국, 학력별로는 고등중졸이 70%이고 전문대졸이상은 16%에 해당되며, 주 연령층은 20-30대이다(통일부 내부자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새터민들이 상담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통합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새터민 증가와 우리사회의 다문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새터민 상담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기존의 새터민 상담에 대한 연구는 새터민의 상담에 대한 태도와 요구도(김성희와 김현아, 2005; 조영아, 2009), 새터민 상담자 역할(김현아, 2007; 조영아와 유시은, 2006), 새터민 상담모형(김현아와 정성란, 2008; 이장호, 2008), 새터민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미술치료(김선현, 송희정, 최순주, 2009; 김정미, 2008; 신형미, 2006; 이신숙, 2008; 최성숙, 2003)와 놀이치료(최명선, 최태산, 강지희, 2006), 대인 관계 증진 프로그램(강숙경, 2009; 한성열, 이종한, 금명자, 채정민, 2007), 목회 상담(강경미, 2006; 유영권, 2005; 유혜란, 2004) 등이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사회의 새터민 상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폐쇄적인 북한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새터민 상담의 실효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음을 말해준다.

한성열 등(2007)이 남한주민과 새터민이 상호 간의 문화와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여 좀 더 원활한 대인관계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 총 4회기에 걸쳐 진행한 프로그램에서는 새터민 중 5명이 중도 탈락하여 남한주민의 새터민에 대한 신뢰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담문화를 매개로 한 남한주민과 새터민 간의 이질감 극복은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당연하고 있는 주요 논제임을 알 수 있다. 현재 2005년부터 시작된 지역사회에서의 새터민 정신건강 지원은 새터민 밀집지역의 사회복지기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담전공자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김선화(2007)는 새터민 정신건강 지원 사업의 어려움으로 새터민의 심리 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지속상담의 어려움, 대상자 확보의 어려움, outreach 상담에 따른 심층 상담의 어려움, 새터민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문가 부족, 현실적인 차원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이에 2009년 통일부 새터민 정신건강 지원 사업은 새터민 동료들이 새터민을 만나 고충상담을 해주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문적인 조력추구 행동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나(Joanne, 2007), 도움추구 행동은 문화적 태도에 따라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 준거의 틀에 맞게 지속적으로 수행 되어져야 한다(Baozhen, 2007). 김성희와 김현아(200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한생활 경험이 없는 하나원 내 새터민은 온정적이고 전문적이면서 탈북자 상담경력이 많은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고 싶어 하였다. 또한 자기 해결적 성향과 접근성, 남한 상담자에 대한 괴리감으로 인해 도움요청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한의 전문적 상담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은 상호감시 비판의 북한문화, 탈북상황, 제3국 체류기간의 차별대우, 지지체계의 미약, 은신생활에서 강화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새터민 155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상담에 대한 요구도와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을 조사한 조영아(2009)의 연구결과를 보면, 정신

건강 전문가를 한 번 이상 만난 경험이 있는 새터민은 전체의 28%에 불과하였고, 이중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35%에 그쳤다. 이는 증가하는 새터민 숫자에 비해 전문적인 상담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 준다.

새터민의 문화적 특성에 맞는 다문화 상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상담 전문가와 새터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새터민 전문가라는 2가지 역할에 있어서 전문적 자질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듯 새터민 상담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훈련 과정을 필요로 한다. 전국의 새터민 조력자 197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새터민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새터민 대상에 대한 이해와 새터민의 문화이해, 새터민과의 의사소통 해결, 새터민과의 대인관계 유지,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지체계 확보 등이었다(윤여상과 김현아 및 한선영, 2008). 한편, 조영아와 전우택(2006)은 동료로서 친구로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해줄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북한출신 대학생들을 위해 또래 상담자를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조집단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새터민이 동료로서 상담을 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훈련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동료상담은 비전문가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조력행동으로 정의되며, 준전문가(paraprofessional)도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전문가 못지않게 상담이나 치료 장면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배경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동료라는 용

어는 관련 있는 가치, 경험, 생활양식을 공유하며, 나이가 거의 같은 사람을 뜻하나 어느 연령층에서나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강진구, 1997 재인용). 우리나라의 동료상담은 1980년대 초에 도입, 대부분이 학교상담의 또래 멘토(금명자, 장미경, 양미진, 이문희, 2004; 노성덕, 김계현, 2007)이며, 그 밖에 집단상담 보조자(강진구, 1997; 이형득, 김정희, 1983), 장애인(임기현, 2003), 군 상담(김광은, 1992; 양미진, 신효정, 송미경, 2008; 이귀열, 2008)에도 적용되고 있고, 다문화 상담에서 소수민족자들에게 적합한 동료상담 훈련을 한 후, 이들을 상담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다문화 사회에서 소수민족을 활용하는 경우는 주로 학업을 증진시키는 멘토(Kate, 2002)이고, 외국인 상담을 위한 활용사례는 일본의 다문화공생 지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88년에 설립된 자치제 국제화협회(Council of Local Authoritie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CLAIR)는 일본 내 거주 외국인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외국인 상담을 위한 인적자원 육성, 재해 시의 외국인 언어소통 문제라고 보고, 외국인 상담사 연수를 실시하여, 인적자원의 동질화, 표준화를 모색하고 있다.

문화적 소수자들이 상담자가 되기에는 지속적인 상담지도와 수련과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고립, 문화적 장애요인이 있으며, Lark와 Paul(Lee, Blando, Mizelle, Orozco, 2007 재인용)은 문화적으로 유사한 상담자는 신뢰감과 모델링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사회 및 탈북과정에서 형성된 상담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새터민들에게 상담하기 위해서 이들과 같은 문화적 배경을 지닌 동료에게 전문적인 상담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여 활용한다면 상담에 대한 신뢰감과 정착과정의 훌륭한 모

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한사회에서 지원해주는 일방적인 수혜관계가 아니라 정착 문화의 주체자로서, 자신들의 공통경험을 활용하여 상담자로서 적절한 훈련을 받고 전문적 자질을 향상한다면, 새터민 상담의 질적 양적 확산의 중요한 자리매김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이주자들과는 달리 새터민의 경우 북한사회 및 탈북과정에서 다양한 외상(trauma)을 경험하였고, 남북한 분단이라는 정치적 상황에 처해 있는 바, 동료로서 상담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따라서 이들이 보다 효과적인 동료상담자로 성장하고 남한 상담문화와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동료상담자로서의 상담경험들을 생생하게 들어보고 새터민의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상담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상담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터민 동료에게 상담 서비스를 해준 경험이 있는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동료상담자로서의 상담에 대한 생각과 새터민 동료상담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며, 새터민 동료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특성이 무엇인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새터민 동료상담자가 상담을 통해 경험 한 내용은 무엇인가?

방 법

자료수집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 표집 방법은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이다. 눈덩이 표집은 연구자에 의해 표본을 선정하는 의도적 표집 방법이다.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본 연구가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에서의 상담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분석함으로써 진행되기에 연구 목적에 대한 동의와 연구자에 대한 신뢰관계 형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눈덩이 표집은 연구 대상 추출이 확률의 개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연구 결과의 외현 타당도를 얻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연구대상

연구 참여자는 한국에서 생활 하고 있는 새터민 9명이다. 남한 거주 기간은 3년~8년으로 평균 5년이며, 성별은 남 2명, 여 7명이며, 평균연령은 38세이다. 학력은 남한에서의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재 대학재학 7명, 석사 1명, 박사과정 1명이다. 대학교 교과과정이나 외부 기관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7명이고, 국가기관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 유사 기관의 정규직원으로 소속되어 새터민을 돕고 있는 사람은 3명이나 그 외는 자신이 속해 있는 대학교나 봉사기관을 통해 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심층면담을 마치면서 자신들이 오히려 상담을 받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통해 볼 때, 본 면담이 참여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전화로 연구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면담을 위한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한 후, 질문지를 미리 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질문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다.

질문지는 반구조화 된 형태로 동료상담자로서 새터민을 상담하면서 경험한 일들, 동료상담자가 바라본 남한 상담에 대한 경험, 동료상담을 하게 된 동기, 상담에 임할 때의 사전 준비사항, 새터민 동료상담자들의 요구 등의 17개 문항의 질문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질문지를 새터민 1명과 예비면담을 실시하여 질문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연구자들 간의 논의를 거쳐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면담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상담전문가로 각각 4년 또는 5년째 새터민 상담을 하고 있는 본 연구자들이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2008년 11월 초에서 2009년 1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면담은 본 연구자들과 일대일로 진행되었으며, 소요시간은 90분에서 120분 정도였다. 면담을 진행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연구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면담은 반구조화 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부가적인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였고, 더 이상의 내용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다음 질문을 하면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소형녹음기로 녹음되었고, 면담 후 연구 참여자들의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질문은 메일이나 전화로 이루어졌다. 면담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상품권을 주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새터민 동료상담자의 남한에서의

상담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들 중 내러티브 분석법으로 진행되었다. 내러티브 분석은 면담이나 문헌연구에서 제공된 삶의 이야기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연구 방법으로, 개인의 경험뿐 아니라 문화적 환경에 의해 구성된 실재(reality)를 중요시 한다(Lieblich, Tuval-Mashiach, 및 Zilber, 1998). 또한, 내러티브분석은 연구자들이 참여자들의 마음을 개방시키는 방법과 참여자들의 단어분석으로부터 삶의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분석 방법 중 Lieblich 등(1998)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Lieblich 등(1998)은 내러티브분석 방법을 전체적 내용(holistic content), 전체적 형식(holistic form), 범주적 내용(categorical content), 범주적 형식(categorical form) 등 4가지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교육학에서 이야기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통적 방법인(Riessman, 2005) 범주적 내용모형을 사용하였다. 이는 새터민 동료상담자들의 한국에서의 상담경험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이야기 주제들을 범주화 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내러티브는 사회적 관계, 과거에 대한 해석, 미래에 대한 계획 등 삶을 조직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고 미래 사건을 준비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내러티브 접근은 발달 연구를 위해 문화적이고 개인의 심리적 관점을 개념화 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준다(Daiute와 Lightfoot, 2004). 또한 내러티브는 타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인간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기에, 범주적 내용모형은 상담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새터민 동료상담자의 이야기 분석에 적합하다.

분석 단계는 첫 번째, subtext 선택이다. 전체 본문은 내용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연구 질문이나 가설에 근거해서 본문 전체가 subtext나 새 파일을 형성하기 위해 재정리된다. subtext는 삶의 이야기 전체 내용에서 선택된 것으로, 독립적으로 다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녹음된 내용을 중심으로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전사분량은 A4 용지로 290장 정도였다. 녹취록 완성 후, subtext 선택을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내용범주화 정의이다. 가능한 한 열린 마음으로 subtext를 읽으면서 감정, 행동, 신념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의 범주화를 정의한다. 분류된 문장들을 통해 이들의 경험이 삶에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 과정은 자료를 범주화 하는 다음 단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세 번째는 자료들을 범주화 하는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는 결과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낸다. 공동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재수정한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분석한 내용을 메일로 발송하여 왜곡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고 재승인을 받았다. 각 범주의 문장들이 정리되고 도표화되어 연구가설이 이 단계에서 검증되어 진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 전 과정은 연구자를 포함하여 3명에 의한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of the material)으로 진행하여 본 분석에 있어서의 민감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연구방법에 대한 타당도 검증

본 연구 방법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 Riessman(2005)이 제시한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설득성(persuasiveness)이다. 둘째, 일관성(coherence)이다. 설득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of

the material)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전 분석 과정은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 2명과 석사 1명에 의해 진행되었다. 심층면담한 내용을 정리한 녹취록과 분석방법을 공동연구자에게 전해주고, 매주 1번씩 9번(총 60시간)에 걸쳐 만나 분석단계별로 각자 분석한 내용을 이야기 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정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총 정리 후, 정리한 내용을 공동연구자들의 메일로 발송하여 확인과 수정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 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셋째, 대응성(correspondence)이다. 대응성은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작업을 다시 보여주어 연구자의 분석이 적합한 재현인지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분석한 내용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메일로 발송하여, 왜곡된 내용이 있는지, 또는 삭제나 수정을 원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함께 분석 내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분석 내용에 대해 왜곡된 것이 없고 수정이나 삭제 없이 수록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넷째, 실용성(pragmatic use)이다. 즉, 본 분석 내용이 다른 연구에 기초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석 내용을 주요인으로 하는 새터민 동료상담자 프로그램 개발을 추후과제로 제안함으로써 실용성을 확보하였다.

결 과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를 근거로 새터민 동료상담자의 한국에서의 상담경험에 대해 질적 분석 한 결과, 8범주, 23하위영역, 61개념을 도출하였다. 연구 분석결과는 표 1에 제시하고,

표 1. 새터민의 동료상담 경험 분석

개 념	사례	하위 영역	범 주
상담문화 부재	7/9	낮선 상담문화	
상담에 대한 무지	3/9		
상담에 대한 자기식 이해	5/9		
상담안내의 중요성	5/9		
격식을 갖춘 남한 상담에 대한 부담	4/9	남한상담에 대한 거부감	동료상담자가 바라본 새터민의 상담에 대한 인식
직업인으로써의 남한 상담자에 대한 거리감	4/9		
비현실적 상담에 대한 실망	3/9		
연구자료 수집으로써의 상담	1/9		
자기해결성	4/9	익숙하지 않은 도움요청	
감작스런 도움 요청	2/9		
역할모델로서의 동료상담자	3/9	동료상담자 역할모델링	
역할모델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	2/9		
도움제공에 대한 금지	4/9	동료상담자로서의 보람	동료상담자의 자세와 역할
섬김으로써의 돌봄	2/9		
동료평가 의식	2/9	동료상담자의 고충	
동료상담자의 소진	2/9		
동료상담자로서의 사명감	7/9	상담에 임하는 동료상담자의 태도	
가치주입	5/9		
상담자 인품 중시	4/9	동료상담자로서의 인간적 자질	
모범적 생활 중시	2/9		
동료상담자의 전문적 자질 요구	5/9	동료상담자로서의 자격요건	
남한의 전문성 따라잡기	4/9		
새터민이 상담자가 되기 어려운 현실	1/9		
상담교육의 필요성	7/9		
경험의 개인차 이해	6/9	동료상담자의 상담자원	동료상담자의 자원
정착초기 새터민 상담활동의 위험성	1/9		
역경을 상담자원으로 활용	5/9		
남한 교육 경험 활용	3/9		
사회적 지지자로 인한 든든함	2/9	동료상담자의 힘의 근원	
신앙으로 견디기	3/9		

표 1. 새터민의 동료상담 경험 분석

(계속)

개 념	사례	하위 영역	범 주
교제 방식의 차이	3/9	대인간관계	새터민 동료 상담 issue
적응수단으로써의 인간관계	2/9		
새터민 간의 시기와 경계	3/9		
진정한 관계 형성 갈망	4/9		
남한에서의 이질감	2/9	생존을 위한 적응	
적응을 위한 노력	6/9		
선택의 부담	2/9	선택의 어려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의 갈등	4/9		
마음열기까지의 어려움	5/9	자기개방의 어려움	
민감한 과거경험 노출 회피	3/9		
감정표현의 어려움	2/9	정서다루기	
외로움 처리의 어려움	3/9		
가족처럼 돌보는 상담	6/9	가족 같은 상담	
찾아가는 상담의 필요성	4/9		
지지적 상담	3/9		
실질적 도움추구	6/9		
문제해결 중시	9/9	해결 중심적 상담 선호	
교감의 중요성	5/9		
동질감을 통한 공감대	7/9	동질감의 중요성	
새터민과 관련된 일은 새터민과 함께	2/9		
적응을 위해서는 남한상담자와 함께	2/9	상담 내용에 따른 상담자 선별	
새터민 특수성	6/9		
피상적 공감에 대한 거부감	5/9	새터민의 특성 이해	
지나친 관심은 차별 부각	2/9		
질문에 대한 거부감	2/9		
현실 강조하는 남한 상담자에 대한 서운함	1/9	남한상담자가 주의해야할 상담기법	
미해결된 애도 감정	3/9		
비밀보장에 대한 우려	2/9	새터민 상담 시 주의점	
물질추구	2/9		
의뢰 및 연계	2/9		
정착단계에 따른 상담접근 차별화	2/9		

새터민 동료
상담 issue

새터민이
선호하는 상담

새터민 동료상담의
효과향상을 위한
선행조건

동료상담자가 생각하는
남한 상담자의 과제

각각의 구체적 범주와 개념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동료상담자가 바라본 새터민의 상담에 대한 인식

낮선 상담문화

북한에서는 대화나 관계보다는 조직생활이 우선이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조직이 비판함으로써 인간 개개인을 강인하게 사상 무장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였기 때문에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사회였다. 그로 인해 상담자가 어떤 역할을 하며 상담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며 상담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이렇듯 상담문화 자체가 낮선 새터민들에게는 아주 사소한 남한의 상담 경험도 남한의 상담 문화를 잘못 인식하거나 과잉 기대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었다.

분명 다르죠. 북한 같은 경우는 엄마 배에서 나와서 탁아소생, 유치원 죽을 때까지 조직생활에 맞게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는 상담이라는 게 필요 없고, 관계나, 대화라는 게 필요 없어요. 딱! 온 나라가 통째로 조직화되었기 때문에 누가 누군가를 상담해줄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조직이 비판하고, 강하게 만들고(사례 5).

상담문화가 부재하였고 상담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새터민들은 상담사를 점, 관상, 혹은 잘못을 지적하는 북한의 선생님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였다. 새터민 개인이 직접 겪은 상담경험을 통해 상담이 어떤 것인지 이해해 나가기도 하였고, 남한사회에서 생활하는 과정

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처음에는 점, 관상 보는구나 했어요. 뭐.. 그거는 나도 다 아는 건데 싶었고, 시간이 아깝다 이래 생각했었죠(사례 8).

남한 상담에 대한 거부감

북한사회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남한의 상담자 역할은 새터민들에게 여전이 부담스럽고 생소한 존재였다. 사례 6은 특히, 동료, 언니나 친구가 아닌 상담자라는 역할 자체가 격식처럼 느껴지고 이러한 상담의 형태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상담 시작 전 새터민들이 상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했는데.. 우리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런데(상담 이런 부분에) 적응 못되다 하니까.. 좀 거부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같은 동료래도.. 그러니까 상담이라 말하고 하면 거부감을 느끼고.. 친구로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동료로서도 하고 언니처럼 친구처럼.. 대해야지. 공식적으로 대하면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 사람들도 일단에 처음에 상담을 시작해서 상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이것을 파악해야 되요(사례 6).

이들에게 남한 상담자는 새터민과는 달리 너무 수준이 높고 형식적으로 보여 거리감이 느껴지거나 진실함보다는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었다.

또한 상담을 받으러 가봤자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새터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료 수집으로서의 상담이라는 부정적 경험을 토로하였다.

외교적(: 형식적인, 겉으로 보이는 친절)으로 보여요. 거리감이 너무 있구나. 우리보다 너무 잘났네.. 좀 이야기하다보면.. 너무 잘났네.. 상담이라는 게 수준이 비슷해야 되는데..(사례 7)

자료로, 자료 수집으로만 사용하고 어, 이 상담을 통해서 새터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료로써 수집하고(사례 2)

익숙하지 않은 도움 요청

북한사회에서 학습된 주체사상 교육은 자신의 문제는 결국 자신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자기 해결적 성향으로 타인(상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상담을 한다는 것은 문제해결의 주체가 상담자가 되는 것으로, 상담을 하게 되더라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담자를 원망할 수 있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된다고 털어놓았다.

음~ 그냥, 혼자서 해결하면 뭐가 스스로 혼자 더 많이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이라서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하하 남들한테 뭐 에~ 그때 그 상담사 말 듣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럴 것도 없고, 하하 아이, 모르겠어요,

잘(사례 4).

새터민들은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밤 열두시고 한 시고 전화하면 차타고 올 수 있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도움을 청하고 그것에 응해주는 사람에게 강렬한 호감을 표현하였다. 새터민들에게 자발적인 상담요청은 용기를 필요로 하고, 어렵게 결심하기 때문에 상담시간, 상담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경우에만 상담자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하하하 근데 사실 제가 그런 성격은 좋아하거든요. 제가 내성적이어서 가지고 내가 그 사귀었던 여자, 그 친구도 그랬었어요, 그 성격이.. 근데 그 00님도 땀이예요, 뭐~ 그 아버님이 북한 출신이신데 **출신이시고 군인이신데.. 그니까 그분.. 제가 밤 열두시고 한시고 전화하면 차타고 오시거든요?(사례1).

동료상담자의 자세와 역할

동료상담자 역할 모델링

새터민 동료상담자는 상담을 받으러 오는 새터민 내담자들에게 남한사회의 성공적인 정착에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낯선 남한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새터민 동료상담자는 상담자이기 이전에 같은 동료로서 남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인물 즉, 성공적인 모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주고 있었으며, 동료로서의 뿌듯함과 자긍심을 느끼게도

하는 듯하다.

근데 우리 애들(같은 새터민들이) 믿지 마라 하는 게 단체들이 자꾸 무슨 일만 있으면 불러요. 그러면 **: 다른 새터민이 그러지 **님은 일절마다 쫓아 다닌다고..아니 일단은 **님이 하는 일은 무조건 따라 가겠다. 좋은 일일 것 같다. 다니면서 관계든지, 다 좋은 일만 있네요. 그렇게 따라다니다 보면, 또 다른 데서 연결이 되더라구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 없이 막 내세우고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감동 받는 거지요(사례 5).

믿고 따르고 싶은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북한사람의 특성이 새터민 동료상담자들의 모습을 보다 더 강력하게 따라하게 만드는 모델링의 학습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동료상담자로서의 보람

새터민 동료상담자들은 자신들이 낯선 남한 생활에서 겪은 사소한 것도 알려줄 수 있고, 이러한 작은 방향제시가 큰 도움을 주었을 때, 그리고 시간과 돈을 뛰어넘어 어떤 일이 생기면 언제 어디라도 찾아가고 보살펴주는 섬김의 자세로 돌보아주었다는 보다 큰 긍지를 느끼고 있었다. 남한사람에게는 물어보기 창피한 사소한 도움들도 선배 새터민 동료에게는 허물없이 주고받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도움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한정착 기간 도움이 절실했던 자신들의 직접적인 경험이 후배 새터민들에게 실재적인 방향제시를 해주었다는 뿌듯함과 최선을 다해 헌신적으로 후배 새터민들을 돌보

는 모습을 통해 새터민 동료상담자들의 진정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아주 초보적인 것을 몰라서 힘들어할 때 제가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게 도움을 많이 주니까.. 큰 보람이지요(사례 9).

동료상담자의 고충

새터민 동료상담자들은 상담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상담을 한 새터민 내담자들이 동료로서 어떻게 자신을 평가하는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북한사회에서 익숙한 생활총화(여러 사람이 모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자기비판, 상호 비판하는 사상투쟁 회의)로 인하여 북한 동료들의 부정적 평가에 민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새터민 내담자의 집을 방문하고 경조사 등을 챙기고 헌신적으로 보살피고, 다양한 위기사례들을 겪게 되면서 새터민 동료상담자들은 신체적 피곤이 누적되고 감정적인 소진이 찾아오는 등의 고충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소진현상을 심각하게 여기기보다는 더 열심히 일하고 강인하게 견뎌내는 것으로 대처하고 있는 듯하였다.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수록에 계속 일하고.. 그 피곤이 누적되어서 집에 들어가면 완전히 쓰러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같이(지금처럼) 아이들 둘 때문에.. 가끔 많이 피곤하면 눈에 충혈이 되요. 한 기(기수) 끝나면 맨날(매일) 그만둔다 해요. 내하고 내 안에 계속 갈등하고 있다...(사례 5).

상담에 임하는 동료상담자의 태도

새터민 동료상담자들은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사명감으로 상담에 임하고 있었다. 동료들의 전령사라도 된 듯한 기분으로 동료상담에 임하게 하는 것은 남북한 분단으로 인한 실질적인 아픔을 직접 겪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염원은 더욱더 간절할 듯하고, 그래서 통일이후의 자신들의 기여에 대해서도 보다 큰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듯하다.

어, 지금까지 저기, 제가 보기에는 호호 이게 나중, 썩 나중에 통일 되고나면~ 어, 뭔가 지금까지 받아본 그런 상담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그러고 계속 감정은 게 너무나도 억눌려 있고 계속 틀에만 이렇게 박혀 있어왔기 때문에 뭔가 잡자기 그런 게 탁 풀어지고 나면 뭔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를 거 같아서~ 그런 상담교육을 받고 나면~ 오히려 서로 도움을 많이 줄 거 같아서(사례 4).

새터민 동료상담자들은 상담 문화 부재로 상담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새터민들에게 남한의 상담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상담문화에 대한 gatekeeper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이해하고 경험한 대로 상담문화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직접적인 남한정착과정의 심리적 고충과 상담의 효과를 같은 새터민의 입장에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새터민 동료상담자들은 돕고자하는 지나친 열정과 사명감으로 인해 상담과정 자신의 가치를 주입시키기도 하였고, 자신의 가치대로 따라오지 않는 새터민 내담자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였다.

엄청 놀래면서.. 어, 부모를 어떻게 용서를 했냐, 자기 같았으면 용서, 죽어도 용서 안 된대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아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누가 봐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렇게 바라봤을 때.. 부모도 용서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지 않음 부모 용서 못한다. 음, 하나님 마음 아니면 용서 못한다 했어요. 그랬어요, 결국. 너 인생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어.. 한국에 왔을 때 그걸 인정해 주는 누가 있냐고.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서 잘 호강하면 너의 지나간 옛 생활도 인정해 줄 것이고 니가:(네가) 아무리 옛날에 화려하게 살았어도 잘 살았어도 한국에서 정상으로 못 살면 너 인생은 거짓말로 인정을 안 한다. 그니까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에 적응해서 잘 사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 정하는 기준이 아닐까 뭐 이렇게(사례 2)

동료상담자로서의 자격요건

동료상담자로서의 인간적 자질

새터민이 새터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상담자로서의 인품이나 모범적 생활과 같은 인간적 자질이였다. 특히, 새터민 동료상담자라고 하면 북한에서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남한생활 정착 과정을 직접 보고 인품에 대한 판단을 눈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 상담자로서 신뢰한다고 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남한생활 적응에 있어서 괜찮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심어졌을 때, 상담자로서 신뢰한다고 하였다.

사람을 쓰려고 하면 북한에서는 일단 위에서 지명하고.. 어떤 자리에 키웠어요. 그 사람 남한에 와서 똑같이 하지는 않거든. 그럴 수가 없거든요. 북한에서는 성분 좋고 계급이 좋고 학벌이 좋고.. 하지만 남한에 와서 좋았더라 나빴더라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새터민들) 자기 눈으로 인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사례 5).

동료상담자의 전문적 자질

새터민 동료로서 상담을 한다고 하면, 다른 새터민과는 달리 따라 배울 만 하다는 전문적 인식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새터민 동료상담자들이 전문적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남한의 전문상담 관련 강의를 듣거나 상담에 임하기 전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는 등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최소한 3년 정도 남한에서 살아본 경험이나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경험이 풍부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새터민이 전문적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도 교육이나 훈련에 투자할 수 있고, 기꺼이 상담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음을 인식하고 있다.

새터민들이 실제 남한에 입국하여 재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요.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전문적인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자면 인내와 희생과 투자가 필요하기도 해요. 사실 새터민 특수성 상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사례 9).

새터민 동료상담자들은 동료들을 아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보다 체계적으로 상담해 주기 위해서는 남한의 상담전문가들로부터 상담에 대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주 기초적인 상담기법에 대해서 익히고 싶어 하였다. 새터민 동료상담자들은 다른 새터민들도 자신과 동일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고 상담을 하지만 너무나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새터민들을 대할 때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였고, 서로 간에 잘못 이해하여 갈등이 생겼을 때는 공격적으로 대하게 된다고 하였다.

예, 좀 그런 게 겁나기는 해요, 같이 앉아서 얘기할 때도 뭔가 내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잘못 이해해서 막 싸움 나고 같이 앉아서 막 언성 높이고 그럴 때, 하하 그럴 때 있고. 좀 뭐라 그럴까.. 제가... 뭐라고 어떻게 말해야 되지? 남의 말 들어주는 그런 거, 더 해 보고 싶어요. 네, 그런 거 배워보고 싶어요(사례 4).

새터민 동료상담자들은 한결같이 남한정착 초기의 새터민들의 상담활동에 대해 매우 큰 위험성이 뒤따른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경고는 정착 초기과정의 ‘허니문 시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이 남한사회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좌절과 위험을 줄 수 있을지를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 행사하는 분들에게 추천해줘서 면접 봤는데.. 6명 모두 새터민 상담자 교육에 붙었어요. 1기로서 한번 잘해보자 했는데. 하나원에서 바로 나온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봐요. 그리고 초보적으로 상담자라고 하면 컴맹은 탈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담을 기록하고 정리하자면 필요한데...(사례 8).

동료상담자의 자원

동료상담자의 상담자원

새터민 동료상담자들은 남한 정착 과정에서 경험한 교육, 자신의 정착사례, 북한이나 탈북 과정 및 남한정착과정에서의 역경 모두를 상담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원은 새터민 내담자를 대할 때 남한생활 선배로서 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서로의 입장을 쉽게 공감 해줄 것으로 보였다.

뭐 이게.. 저의 노력이라고 하면 안 될 거 같구요.. 북한에서도 그렇고 여기 와서는 특별히 그런.. 거 같지는 않고 북한에서도 하여튼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일단.. 제가 우리 북한사람 어떤 사람들은, 같은 북한사람들이면서도 북한사람들한테 환멸을 느끼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전 북한사람들 진짜 솔직히 그렇죠, 북한 사람들보면 진짜 눈 감기게 놀죠, 사실은 근데 우리 북한 사람들의 장점이.. 저 개인적으로 일단 북한에서 고생을 해봤고 그니까 살아야 된다는 게 있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게 있고 그리고 거의 뭐 가족들, 뭐 한 두 명이라도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엔 세 명이나 떠나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라는 거 특히 가족이 귀중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이고 전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니깐 그래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탈북자들,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 하거든요.. 해서 그게 또 지금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거 같고(사례 1)

동료상담자의 힘의 근원

새터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적응해 나가면서 동시에 같은 새터민 동료를 상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힘든 점들이 생길 때 새터민 동료상담자들은 가족이나, 주위의 사회적 지지자가 있어 한결 든든하다고 하였다.

제가 신앙이 있으니 술을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오늘 하루 무사히 넘어갈까 하면은 아이들이 냉장고에다가 작은 병 맥주를 3개씩 쌓아다가 채워놓고 그게 없으면 아이들이 착착 재어놓아요. 아침 출근할 때는 목이 마른다고 사탕이랑, 주머니 입구에서 주고.. 엄마. 이제는 나갈 일만 남았다고.. (사례 5)

또한 신 앞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신앙으로서 어려움을 견디고 동료상담자로서의 힘을 얻기도 하였다. 새터민들은 탈북과정 및 남한정착과정에서 종교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종교를 경험하게 된다. 이때 신앙은 가장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마음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 되고, 남한사회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뭐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죠. 신앙

이, 지금은 제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 진짜 제가.. 아직까지 사람들 앞에서 마음먹고 울어본 적이 없거든요? ... 근데 제가 교회 가서는 영영 울거든요. 허~ 진짜 막 울어요. 제가 **에 있을 때도.. 그, 산골이잖아요? 산골인데 거기 그 산골에 들어가니까 그 뭐가 그게, 수련관인가? 그 교회 애들 수련관이 있잖아요? 야밤중에 거기 갔었거든요? 진짜 울고 싶어서 기도하려고 울고 싶어서 갔는데... 달빛에 막 십자가가 보이더라구요. 십자가 앞에서 그냥 기도 했는데 어우~ 눈물 나는데 제가 한 시간동안 울은 거 같아요. 왕왕 울었는데..(사례 1)

새터민 동료상담 issue

대인관계

친한 사람을 집으로 초청하여 서로 왕래하는 것이 익숙한 새터민들은 그렇지 않은 남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남한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또 한편으로는 남한 정착과정에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거나, 대인관계를 맺는 상대방의 특성에 따라서 친밀감의 거리를 제한하는 등의 전략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

뭔가가 제한 돼있어요, 저한테. 아~ 뭔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어~ 이 사람하고는 어디까지의 얘기만 해야 된다는 그런 걸 그런 걸 계산해 놓고 하하 있어

서 계속~ 하하 조금.. 별로 안 좋은 습관인데(사례 4).

새터민 간의 인간관계 특성이 상담자-내담자와의 관계와 같이 한국에 와서 서로 다른 지위에 처해 있을 때는 질투와 시기심으로 다투게 되거나 화풀이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새터민들이 새터민 동료 상담자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도 시기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새터민 동료들끼리의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묘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후배들에게 필요한 정보이지만 알려주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거나, 경쟁이 될 만한 실질적인 정보를 잘 알려주지 않기도 하였는데, 이는 경쟁위주의 한국사회에서 보다 더 잘 적응하기 위한 서로 간의 경계심으로 보였다.

제일 처음에 당신이 뭐냐? 당신도 탈북자 아니냐 할 때는 북한 사람 특유의 성격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같은 동료에게 뭐하는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고...풀어 설명하면은 되겠는데.. 그래도 내가 한자 더 배운 놈이(참아야지 싶고)... 다른데서 기분 안 좋았는데... 화풀이 대상 되는 거예요 (사례 7).

생존을 위한 적응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와서 새터민들이 느끼는 이질감은 몸에 베일 때 까지 완전히 체험을 해서 하루빨리 적응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작용하였다. 적응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배우거나, 신체가 따라주지 않더라도 주말이나 휴

식 없이 일을 하고 정해진 일에 대해서 완전 할 때까지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새터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현실적응이 우선되어야 함을 느낄 수 있었다. 상담에서는 탈북과정 새터민 대부분이 지니고 있는 상처를 들추어내기 보다는 현실에서 어떻게 보람 있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참여해보고.. 남한사람들과 함께 많이 참여해보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구나..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체험이 중요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아직도 체험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아직 몸에 배인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체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그걸 해야 한다 하면 해야 하고, 아무리 피곤하다해도 그 일이 정해져 있다하면 해야 하는 게 아직도 완전히 몸에 안 배인거죠. 그래서 그게 완전히 될 때까지 수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사람들 조금 힘들어요(사례 6).

선택의 어려움

북한사회에서는 국가에서 정해서 배치를 하고 그것대로 따라 하면 되었던 문화였지만, 한국사회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선택상황은 새터민들에게는 자유스럽기보다는 혼란스러움 그 자체였다.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현실적인 문제해결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

다. 이러한 특성은 상담상황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에 대한 책임부여조차도 새터민들은 매우 부담스러워하였는데, 그만큼 새터민들에게 있어서 아주 사소한 선택상황도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게 그 학생들은 물론이고 일단 성인들도 여기 와서 차라리 북한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북한은 배치를 받잖아요. 여기 와서 너무 많으니까 뭐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그게 또 혼란스러운 거예요(사례 1).

자기개방의 어려움

새터민에게 있어서 스스로를 개방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며, 특히 과거에 겪었던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은 끊어 부스럼 만드는 일이라고 하였다. 다음의 한 여성 새터민은 상담을 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야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털어놓았다. 그만큼 새터민이 경험한 상처나 비밀을 상담에서 토로하기란 참으로 힘든 주제인 듯하다.

예, 그니까 서로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예, 그니까 굳이 너도 상처 있고 나도 상처 있는데 굳이 뭐 끊어서 부스럼 만들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선지 서로 딱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는 편이고 그래서 솔직히 서로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뭐 그 친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글 쓴 게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안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제서야 제가 아, 애가 이렇게 살았구나

알았거든요. 주로 혼자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그렇다보니까(사례 3)

정서 다루기

새터민들은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슬픈 감정이 북받쳐 올 까봐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기분 없다(기분이 좋지 않다)”는 북한 언어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북한사회에서의 감정표현은 당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할 때 이외에는 타인에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억압된 부정적 감정이 폭발하는 것에 대한 불편감은 타인과의 친밀한 정서교감을 힘들게 하는 듯하다. 특히 혼자 지내는 것에서 오는 외로움은 너무도 극복하기 힘들다고 한다. 다음의 사례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 없이 혼자 생활을 하는 외로움에 벽을 보고 울다가 죽고 싶다는 자살충동까지 들었던 이야기를 듣고도 외로움을 다스리는 것을 도와줄 수 없어 난감했다는 동료상담자의 얘기를 통해 정서 다루기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어쨌든 저는 뭐 가족이 있고 이러니까 집에 가서 막 수다 떨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혼자오신 분들이 많으니깐 뭐 학교에서 와서 공부하고 집에 가면 또 혼자고 예, 그래서 참.. 혼자서 너무 외로워 가지고 벽보고 울다가 죽고 싶은 생각도~ 막 자살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예, 해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면 참 외로운 분들도.. 그쵸.(사례 3).

새터민이 선호하는 상담

가족 같은 상담

새터민들은 때로는 엄마처럼, 누나나 형제처럼 가족같이 희생하고 돌보아주고,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며칠에 한번 씩 안부도 물어주고 확인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기를 희망하였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하나가 되어 자기 일처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주기를 바라고, 새터민들이 낯선 남한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낙심하고 있을 때 상담자가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어주는 지지적 상담을 희망하였다. 또한 내담자가 상담실을 찾아오는 전통적인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보다는 거주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면 대 면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즉시적으로 함께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상담을 선호하기에 동료상담자들은 새터민에게 가족이상 이었다.

특히나 학교를 졸업하고 많이들 고마워하지요. 토, 일요일에는 과일박스가 끊임없이 와요. 고마워서. 그거 깎아서 먹이고.. 손이 아무리 아파도 그게 보람이지요. 힘들어도.. 묵묵히 그냥.. 그것뿐이에요. 가정의 엄마,, 누나.. 역할.. 새터민 결혼할 때 한복입고 엄마질(엄마역할)도 하거든요. 애기 낳으면 거기 가서 보고.. 또 영상(방송으로 나오는 것을 말함) 나오고..하는 일이 많지요(사례 5).

해결 중심적 상담선호

사례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낯낱한 남한사회에서 “관심”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한번 알려주고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관심보다는 상세하게 눈에 보이는 실질적 도움을

통해 관심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 밖에도 돈을 준다거나 직업을 구해주는 것과 같은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었을 때 새터민들을 품어주는 행동이라고 보았으며, 부부 및 직장문제 해결 등 직접적인 문제해결을 주는 방향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남한생활 정착에 필요한 생활 및 기타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상담 또한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네, 어후~ 깜깜해가지고 하나도 안보여요. 도서관 데려가는 사람도 없고 도서관 사용법도 아는 사람, 남들은 제까닥 뭐 원하는 걸 찾는데 저는 1시간씩 도서관에서 교재하나 찾는 거 삼십분씩, 한 시간씩 걸리잖아요. 그니까 데리고 가서 어, 방법을 알려주고 다시 그 사람이 원하는 책을 찾도록 알려주고 그담에 컴퓨터에 가서 문서 작성하라고 해서 이게 작성자도 이게 뭐 F8을 누르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가서 일단 작성을 하라고 하고, 내가 한 번 알려주고 그담에 실제 가가 다시 문장 쓴 거를 다시 지절로(: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이러한 관심, 그담에 관심만 가지면 뭐해? 근데 그 관심을 줘야 되잖아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 가지지 않으니깐.. 그래서 그걸 한 번, 그랬음 좋겠습니다(사례 2).

새터민 동료상담의 효과향상을 위한 선행조건

동질감의 중요성

새터민 상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교감

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은 편안하게 새터민들이 사용하는 용어나 속어 등을 함께한다거나 비슷한 출신배경, 이주 후 정착과정이라는 공통의 화제가 있을 때 보다 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그리고 막 속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또 막 하기도 하는데 또 오랜만에 막 속어를 또 자주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들으니깐 뭔가 반가운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어.. 어쨌든 좀 긴장됐던 그런 게 아, 이 동아리 오면 좀 긴장이 풀리고 예, 그리고 어쨌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던 거 같어요(사례 3).

상담내용에 따른 상담자 선별

새터민들은 상담에서 해결하고 싶은 내용에 따라 상담자를 선별하는 특성을 보였다. 즉, 새터민과의 갈등관계나 북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남한사람들이 흉을 볼 것 같고, 새터민 동료상담자가 훨씬 더 잘 이해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남한사회의 적응에 필요한 모든 문제는 남한상담자에게 문제를 의뢰하고자 하였다.

뭔가 남한 친구들하고 어우, 개네 뭐, 이렇게 얘길 하면 뭔가 더 홍보는 거 같고... 예, 같은 데서 와갖고 저렇게 홍보고 다닌다 그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거 같기도 하고 또 왜 우리가 뭔가 트러블 있는지도 뭔가 잘 이해 못 할 거 같고 하~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쪽 친구들하고 얘길 하게 돼요. 어~ 만일에 북한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뭔가 문

제가 있거나 아니면 고향이랑 이렇게 관련된 문제면 북한 상담사한테 갈 거 같구요. 그 여기에서 적응하면서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는 남한 상담사한테 갈 거 같아요(사례 4).

새터민의 특성 이해

새터민 상담을 위해서는 새터민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흑백논리적 사고경향과 조급성과 같은 극단적 사고성향, 새터민 본인들의 문제는 새터민 본인들이 모든 걸 하려고 하는 보수적 특성이 있으며, 같은 새터민의 경우에도 속상해서 걱정하는 말을 무시한다고 느끼거나 상처를 쉽게 받는 등 자존심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착 초기 과정에는 북한에서 정치적 망명을 한 것에 대한 남한정부의 특별대우를 은연중에 기대하게 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음... 글썄요~ 뭐가 있지?~ 그냥 상담을 많이 해봤다면~ 북한 사람들 많이 대상으로 해봤다면 뭐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어 처음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그니까 그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권이 다르고 하니까 생각하는 것도 좀 판이하게 다를 것이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그런 이해 정도가 약간 떨어질 거 같아요(사례4).

동료상담자가 생각하는 남한 상담자의 과제

남한상담자가 주의해야 할 상담기법

새터민 상담에 있어서 남한상담자가 보여주

는 기법 중 공감적 태도는 유난히 새터민들에게 거부감을 주었다. 새터민의 사정을 이야기했을 때 너무 불쌍하게 바라보는 시선은 새터민을 동정할 뿐 진심이 없는 걸치레 같다는 인상을 보인다고 한다.

그리고 또 내 솔직히 이야기 하자면은.. 남한 사람들은 우리 사정 이야기하면은 힘들었겠다... 어렵겠다 하는 말이 불쌍하게 보는 것 같아요. ‘너 뭐 하는 건데?’ 이런 느낌 있어요. 걸말(걸치레 말) 같아요(사례 8).

관심과 배려를 넘어선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남한사람이 아닌 새터민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게 되어 거부스럽다고 하였다. 새터민들은 남북관계의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북한과 관련된 편견과 차별은 새터민이라는 정체성을 공개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상담자가 보여주는 지나친 관심은 곧 남한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차별과 소외를 느끼게 하는 듯하다.

근데 간혹 상담이라던가 새터민에 대해서 자원봉사 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그니까 새터민에 대해서 뭐 관심이나 배려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또 그들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지나치게 과잉적으로 뭐 대해주는 건 오히려 더 차이를 부각시키고 이렇게.. 소외되는 감 느끼고.. 해서 뭐 그런 역할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사례 1).

또한 남한상담자들이 새터민의 이야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주 하게 되는 질문은 교

감에 방해가 되어 새터민들의 이야기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었다. 상담 장면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남북한 언어 차이에서 오는 언어장벽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질문이라는 대화기법은 조사나 심문과정에서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고, 낯선 타인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듯 하였다.

(같은 새터민 동료들은) 이 사람이 필요요하는가를 잘 안다. 여기 사람들(남한사람들)이 듣고 질문을 해요.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잦은 질문을 하다보면, 교감이 안 되는.... 내말 알아도 못 듣고.. ‘예.. 뭐라구요?’ 거부감이 온다구요(사례 7).

힘을 북돋우어주기보다는 냉정한 남한의 현실을 직면시키고 남한사람과 비교하면서 힘들 것이라고만 표현하는 남한상담자에 대해서는 같은 새터민 동료가 말하는 것과는 달리 몹시 섭섭하게 들린다고 하였다. 남한사회 정착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앞서 있는 상태에서 남한 사람과 비교하여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것은 오히려 새터민들이 남한 사람에 비해 열등하고 부족함을 강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서운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남한 상담자들은 이제처럼(지금처럼) 이야기하는 방식이 북한사람들에게는 눈에 거슬러요. “너 그거 하면 힘들 거야..한국 사람들도 진짜 힘든데... 경제난이고 취업난인데... 너 힘들거야 못할거야..!”. 이런 식.. ‘난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 하는 반발이 생겨요. 근데 같은 북한사람이 “취업난 있어서 지금 좀 힘들 거 같애.” 이러면은 ‘아! 정말 힘든가.’ 하는...(사례 8).

새터민 상담 시 주의점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상담에 있어서는 다음 몇 가지를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먼저 탈북과정에서 생긴 갑작스러운 외상(trauma)경험에 대한 애도 감정을 해결하지도 못한 채, 북한을 떠나 남북이 분단된 채로 한국에서 생활함으로써 미해결된 애도 감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제가 그런 적도 있었고 제 손으로 뭐 제 여동생도 땅에 묻어봤고 진짜 거의 뭐 막 미치는 거 했는데 그게 그렇게.. 그게 열심히 살았던 거 같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사귀었던 여자애도 **이었던거거든요, 그니까 제 동생들이 **이어서 제 동생도 **이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들 보면 동생 생각이 나고 또 동생 나이에들 또래를 보면 잘 해주고 싶고. 제가 불효자식인지 모르겠는데 부모생각보다 여동생 생각이 더 나거든요? 하~~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하~ 그랬던 거 같아요(사례 1).

상담윤리 부분에 있어서 비밀보장의 원칙과 이중관계에 대한 부분을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즉, 새터민의 개인정보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피해를 주거나 신변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며, 상담에 있어서 비밀보장에 대한 문제를 보다 엄격하게 처리해야함을 시사해주었다.

그래 이제 어떤 걸, 설문조사를 한다 해가지고 겨우 이제 뭐 설문조사를 위해 어떤 걸 해가지고 이제 본인의 이름하고 생일, 뭐 전화번호 있어 뭐 걸어 보면 뭐 라고 얘길 하나면 그냥 뭐 개인 무슨, 무슨, 무슨 자료라나? 뭐, 사진 뭐 해가지고 애들이 막 벌벌벌 떨어요. 뭐.. 저는 사실은 음.. 아직까지도 가명을 그렇게 안 써요. 애들은 이제 뭐 설문조사하면 다 가명을 쓰고 누가 와서 뭘 좀 해달라면 다 가명을 쓰고 이제 벌벌 떨어야요. 저는 가명 안 쓰고 본격지까지 고대로 주고 그래요. 그니까 나름대로의 삶이 안 좋았는거봐요. 왜냐면 그것이 여기 그냥 비밀이 보장 된다는 법이 없고 혹시 비밀이, 그때 그.. **예선가 어딘가 비밀이 노출 되가지고 거의 이제 모든 문건이 다 **으로 갔잖아요(사례 2).

기타 유물론적인 사고방식 등으로 인해 상담에 대한 참여 동기가 참가비용이나 수당과 관련된 물질적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움직여 지기도 하였다.

한국 사람들이 움직이는(운영하는) 상담소, 사회복지관, 요양소 이런 거는 정말 많지요. 여기서 만원 준다하면 찢끔 가고, 저기서 만원 준다 하면 또 저기 찢끔 가고..(사례 6).

또한 심리상담 이외에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환경적 요소를 제공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의뢰하거나 연계하는 부분이 상담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었다. 새터민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서비스 욕구는 정착단계에

따라 다를 것이고, 새터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착단계에 따른 보다 세분화된 상담접근방식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새터민 동료상담자의 상담 경험에 대해 심층면담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새터민 동료상담자들의 상담경험의 이야기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연구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새터민 동료상담자의 상담 경험을 분석한 결과 8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째, 동료상담자가 바라본 새터민의 상담에 대한 인식이다. 상담문화가 없는 북한에서 생활해온 새터민은 상담에 대한 무지와 인식 부족으로 인해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새터민에게 정신건강 전문가가 제공하는 상담 혹은 치료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70%가 ‘전혀 모르거나 거의 모른다’고 응답한 조영아(200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특히, 상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격식을 갖춘 남한 상담자의 상담은 형식적인 만남으로 인식하게 되고, 새터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전문상담에 대한 거부감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이는 다문화상담에서 상담자가 덜 구조적이고 공식적이지 않는 환경에서 만나는 것을 통해 문화적 유연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김태호 등(2008)의 주장과도 일치하였다. 상담문화가 낮설고, 남한 상담자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은 새터민의 도움요청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는 김성희와 김현아(2005)의 연구뿐만 아니라 이민한 동양인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Akutsu, Snowden & Organista, 1996)와 난민들의 전문적 도움요청 태도(Bemak & Chung, 2002)와도 일치하여, 상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와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동료상담자의 자세와 역할이다. 상담자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상담자의 직업적 활동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이장호, 1986). 새터민 동료상담자들은 남한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후배 새터민들에게는 존경과 함께 부러움의 대상이며 멘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정착지에서의 교육이 난민들의 정신건강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Tran, Manalo & Nguyen, 2007), 문화적으로 유사한 상담자는 신뢰감과 모델링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Lee, Blando, Mizelle, & Orozco, 2007)과도 유사하다. 새터민 동료상담자들이 보여주는 바람직한 행동이나 태도는 후배 새터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보다 나은 남한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와 목표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새터민의 이상화가 새터민 동료상담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먼저 정착한 새터민으로써 상담문화에 대한 *gatekeeper* 역할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과 지나친 사명감으로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상담자 역할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동료상담이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이라고 하지만(Fagan, 1986), Mowbray 등(1996)은 이들이 지치지 않고 역할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상담에 대한 지도감독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더군다나 거의 대부분의 새터민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

업이기에 이들이 동료상담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남한에서의 지속적인 학업뿐 아니라, 새터민 동료상담자 양성기관의 지속적인 수퍼비전 시스템이 함께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새터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동료상담자 역할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새터민 동료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속성 훈련으로 동료상담자 배출에 급급한 현상을 우려하는 새터민 동료상담자의 이야기를 볼 때, 동료상담자 훈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한편, 정신적, 신체적 소진에도 불구하고 새터민 동료상담자들이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섬김으로써의 돌봄을 통해 얻게 되는 긍지와 자부심 때문이었다. 이는 동료상담자들이 상담을 통해 얻는 유익으로 안녕감과 자존감 향상이라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Bratter & Freeman, 1990; de Vries & Petty, 1992; Stone & Waters, 1991). 동료상담자로서 상담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한 점은 강화시키고, 정신적, 육체적 소진에 대해서는 예방하고 적절히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한 교육과 기법훈련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존의 새터민 동료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재검토와 개발이 필요하겠다.

셋째, 동료상담자의 자격요건이다. 동료상담자의 자격요건으로 인간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새터민은 동료상담자에게 절제되고 모범적인 생활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모범적 생활이 검증되었을 때 이들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남한 사회에 적응은 물론이고 상담자로서의 상담지식과 다양한 사례 경험을 통한 전문적인 자질을 요구하였다. 새터민 동료상담자들은 남한 상담자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과제뿐 아니라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할 개개인의 과제도 남아있기에 새터민이 동료상담자가 되기는 쉽지 않은 여정이다. 이는 문화적 소수자들이 상담자가 되기에는 지속적인 상담지도와 수련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지속적인 상담지도와 수련과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고립, 문화적 장애요인이 있다는 주장(Lee et al., 2007)과 일치한다. Garcia, Metha, Perfect 및 McWhiter(1997)은 동료상담자 자신의 주제가 불가피하게 일어나 상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동료상담 훈련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처럼, 새터민 동료상담자 훈련 시, 상담기법 훈련 전에 일정 기간 전문상담을 직접 받아보면서 자기점검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동료상담자의 자원이다. 새터민 동료상담자들은 대학 교과과정에서 학습한 것이나 외부 기관에서 학습한 내용을 자신들의 상담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힘들었던 탈북과정을 회상하면서 그들만의 경험을 동질감 형성과 공감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동료상담자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그 경험에 근거한 공감을 자신들의 강점으로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Garcia et al., 1997). 동료상담자의 또 하나의 자원은 신앙과 사회적 지지자이다. 탈북과정에서 접하게 된 신앙은 자신들의 힘의 근원이었고, 남한사회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든든한 후원자로 자리매김하고 있기에 신앙은 이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상담자이다. 탈북과정에서 모든 것을 북한에 두고 왔기에 가족과 함께 탈북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자가 미약하고 한 번 형성된 사회적지지 기반은 더 없이 든든할 수밖에 없다. 난민이나 이주자들과 마찬가지로 새터민들 또한 낯선 사회에서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양승민,

2008; 이종아, 2004), 새로운 분야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있음이 분명 하였다.

다섯째, 새터민 동료상담 issue이다. 새터민 동료상담자들에 의하면 새터민이 호소하는 문제는 적응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들, 선택의 어려움, 남한 사람 또는 새터민 간의 인간관계, 자기개방의 어려움,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 대처에 대한 어려움 등이다. 이러한 결과는 새터민이 상담받기 원하는 주제가 남한 사회 적응과 주거지, 구직 등과 관련된 현실적 문제, 진로결정, 신체화, 남한 사람들의 편견과 문화차이 등 이었다는 김성희와 김현아(200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새터민 상담은 심리-복지-의료-취업과 같은 팀-접근(team approach)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야 함을 입증해주었다. 외로움이나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혼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이성친구와 동거하는 사람보다 우울 및 불안수준이 높다는 조영아(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자기개방의 어려움에 있어서는 고통스러운 외상경험을 한 내담자들이 자기은폐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와 일치한다(Komiya, Good, & Sherrod, 2000).

여섯째, 새터민이 선호하는 상담이다. 새터민 동료상담자에 의하면 새터민이 선호하는 상담은 가족처럼 오랫동안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줄 수 있는 가족 같은 상담을 선호하였다. 낯선 남한사회에서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의 분리경험이 있는 새터민들에게 동료상담자는 남한사회에서 형성한 유사(類似)가족으로서 가족을 대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하다. 새터민에게는 가족이나 친족과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조영아와 김연희 및 유시은(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새터민은

남한 정착 후 상담을 받고 싶어도 상담센터에 대한 정보부족과 새터민의 특성을 이해해줄 수 있는 남한 상담자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가 낮기에 동료상담자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주길 선호하고 있다. 이는 난민들을 상담함에 있어서 찾아가는 상담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Khamphakdy-Brown, Nilsson, Russell & Klevens, 2006)와 일치하며, 다문화상담에서 내담자에게 가족이나 파트너를 초대해서, 전통적인 개인 상담에 덧붙여지는 다양한 대안적 상담(가족 상담이나 부부상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거나, 과거 지향이라기보다는 좀 더 직접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상담이 문화적 유연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김태호 등, 2008)는 주장과도 유사하다. 또한 새터민이 선호하는 상담은 해결중심적 상담이다. 새터민은 남한 사회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에서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살아왔던 새터민들에게는 남한사회 정착에 필요한 자본주의의 문화자본을 익혀야 하고,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익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당면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중심적 접근이 새터민 상담에 적합하다고 한 조영아(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일곱째, 새터민 동료상담의 효과 향상을 위한 선행 조건이다. 새터민 동료상담자에 의하면 새터민 상담의 효과 향상을 위해선 주기적으로 정해진 시간동안 상담만 하는 것보다 일상 공유를 통해 형성된 신뢰감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새터민의 특수성을 이해해줄 수 있고 동질감을 통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상담을 선호하였다. Giese-Davis 등(2006)에 의하면 위기를 극복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의 대화가 동질감 형성의

이점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선호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새터민들이 남한사회에 와서 흔히 느낄 수 있는 경제 및 문화, 교육, 사회경제적 지위 등 다양한 맥락에 대한 상대적 빈곤감은 동료상담자도 자신들과 비슷하다는 공감대 및 진실한 교감이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인 상담이 진행될 것으로 사료된다. 새터민 상담의 효과 향상을 위한 또 다른 선행조건은 새터민이 상담 주제에 따라 상담자를 선별하는 특성에 대한 이해이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새터민과 관련된 일은 새터민 동료상담자와 상담하길 희망하고, 남한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남한 전문상담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 내담자들의 상담 주제에 따른 상담자 선별은 남한의 상담자와 새터민 동료상담자 모두 각각의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 같고, 남한의 상담자와 새터민 동료상담자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동료상담자가 생각하는 남한 상담자의 과제이다. 새터민 동료상담자들은 새터민 내담자를 상담하면서 남한상담자들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토로하였고, 이를 근거로 남한 상담자가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타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부족한 상담자는 문화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타문화에 맞는 상담기법과 접근법이 생겨나야 하고, 내담자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활용하고 촉진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문화에 맞는 상담을 개발하여야 한다(이기영, 박영희, 임태완, 김현경, 김현아, 2009 재인용). 새터민 동료상담자들은 남한 전문상담자가 새터민 상담 시 주의할 상담기법으로 피상적 공감과 동정적 태도를 강조하였

다. 남한 전문상담가가 새터민에게 하는 계속된 질문은 새터민에 대한 기본 이해부족으로 인식하기에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이해하는 척하는 공감은 새터민에게 진솔하지 못한 가식적 반응으로 여겨져 거부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킴으로써 차별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여기기에 이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이는 상담자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존중과 진솔한 태도에 대한 기대가 높고, 수용적이고 공감하는 태도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조영아(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새터민은 탈북과정에서 가족과 이별하거나 사별하는 등 큰 상실의 아픔을 안고 있지만, 충분한 애도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남한 사회 적응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급급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해결된 애도 감정이 한(恨)이라는 정서의 응어리로 남아 있을 수 있고, 타인과의 대인관계에서 전이(transference)되거나 특히, 동료 상담자들은 내담자에 대한 역전이(counter-transference) 문제로 나타날 수 있기에 새터민 상담 시에는 미해결된 애도 감정을 다루어줄 필요가 있다. 새터민에 대한 편견과 이해에 대한 기대부재가 남한상담자의 한계였다. 이는 난민의 상담 및 심리치료모형(Bemak & Chung, 2002)에 있어서 난민대상에 적합한 주요 상담기법, 내담자에 대한 이해, 내담자의 역사적, 사회경제적 이해, 문화적 민감성, 내담자의 심리적 특성 이해, 주요 외상(trauma), 갑작스러운 이주와 관련된 상실감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새터민의 정착 단계별 특성에 따른 상담의 개입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새터민 상담의 주요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주난민이 이주한 후 이주국

및 이주사회에 재정착시기동안의 해결과업과 개입문제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이기영 외, 2009 재인용)와도 유사하였다.

새터민의 증가로 새터민 상담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첫째, 상담 문화 부재로 익숙하지 않은 상담을 접하고 있는 새터민의 상담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은 새터민 상담 시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의의가 있다. 둘째, 새터민 동료상담자의 상담 경험 분석을 근거로 효과적인 새터민 상담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시도한 점이다. 새터민의 상담에 대한 요구에 관한 연구가 있었지만, 대부분이 양적연구이거나 양적연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질적 연구를 병행한 연구이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새터민 동료상담자들의 생생한 상담 경험의 이야기를 질적 분석하였기에 새터민 상담의 구체적인 방안 모색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와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했던 9명의 새터민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남한 정착기간, 주생활지의 특성 등 개인적 요인들이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동료상담자의 상담경험을 통해 얻게 된 결과에 근거하여 동료상담자를 돕기 위한 과제 제시에만 그쳤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새터민 동료상담자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육 프로그램이 집단상담 형태로 진행될 때 사회적 지지기반이

약한 새터민 동료상담자들에게 든든한 사회적 지지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며,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심리적인 불안과 조급함 대신에 긍정적이고 주체적인 관점을 갖게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단구성원을 새터민 동료상담자와 남한 전문상담가로 구성하여 이들과의 연계를 통해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상호적인 win-win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경미 (2006).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한국사회 부적응 문제와 기독교상담 전략. 복음과 상담, 7, 117-144.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 강숙정 (2009). 새터민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셀 프파워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박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 강진구 (1997). 동료 집단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5(1), 183-208
- 금명자, 장미경, 양미진, 이문희 (2004). 청소년 또래상담.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광은 (1992). 동료상담자 훈련에 관한 일 연구 - 사관생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선현, 송희정, 최순주 (2009). 미술치료가 내적 스트레스 감소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 탈북아동을 중심으로. 조형교육, 33, 59-79. 한국조형교육학회.
- 김정미 (2008). 아동중심 미술치료를 통한 새터민 아동의 자아개념과 학교생활 수행 향상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15(2), 275-294. 한국미술치료학회.
- 김성희, 김현아 (2005). 새터민의 상담에 대한 요구도와 도움요청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6(3), 693-712.
- 김선화 (2007). 민간단체의 새터민 정신건강 지원 사업현황. 새터민 전문상담서비스 자원봉사단 Map망 구축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서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공동종합복지회관.
- 김태호, 임은미, 김인규, 은혁기, 김명식, 서혜석, 하혜숙, 김영혜, 김수아, 정성진 역 (2008). 다문화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태영출판사.
- 김현아 (2007). 양파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 새터민 상담자의 역할과 과제: 치료적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일반 심포지엄: 308-309.
- 김현아, 정성란 (2008). 새터민의 가족상담 모형 개발. 상담학연구, 9(3), 1333-1356.
- 노성덕, 김계현 (2007). 학교 또래상담의 정착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5(1), 29-38.
- 신형미 (2006). 탈북청소년을 위한 집단 미술치료 체험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양미진, 신호정, 송미경 (2008). 군 솔리언또래 상담 훈련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연구, 1-126.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양승민 (2008). 한국적 다문화상담의 모색을 위한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에 관한연구.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유영권 (2005). 탈북자들의 적응 스트레스와 목회상담적 대처방안. 기독교상담학회지, 9, 177-220.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 유혜란 (2004). 탈북자들의 자아회복을 위한 목회

- 상담적 접근: 자기 심리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신대학교.
- 윤여상, 김현아, 한선영 (2008). 남북 문화 간 통합을 위한 새터민 조력자의 교육모형 탐색. *아시아교육연구*, 9(3), 1-28.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이기영, 박영희, 임태완, 김현경, 김현아 (2009). 이주 난민의 정신건강과 상담. 서울: 나눔의 집. 150-168.
- 이귀열 (2008). 군 동료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석사학위 논문, 아주대학교.
- 이신숙 (2008). 집단미술치료가 새터민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평택대학교.
- 이장호 (1986). 상담심리학 입문(2판). 서울: 박영사.
- 이장호 (2008). 크로싱-탈북자 및 새터민에 대한 심리적 이해와 상담: 새터민 상담접근의 쟁점: 새터민 정착 상담의 접근 모형. *한국심리학회 일반 심포지엄*: 308-309.
- 이종아 (2004).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형득, 김정희 (1983). Peer Group Counseling의 효과에 관한 연구. *지도상담*, 8, 계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임기현 (2003). 중증장애인의 동료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 조영아 (2009).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상담에 대한 요구도와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85-310.
- 조영아, 김연희, 유시은, (2009). 남한 내 7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329-348.
- 조영아, 유시은 (2006). 새터민 정신건강 전문가의 역할과 개입전략. *통일정책연구*. 통일부 통일연구원. 15(2), 53-77.
- 조영아, 전우택 (2006). 북한출신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67-186.
- 최명선, 최태산, 강지의 (2006). 탈북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전략 모색. *놀이치료연구*, 12(9), 23-24.
- 최성숙 (2003). 탈북청소년을 위한 미술치료.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 한성열, 이종한, 금명자, 채정민, 이영희 (2007).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대인관계와 문화적응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한국심리학회: 사회문제*, 13(2), 33-54.
- Akutsu, P, Snowden, L. R., & Organista, K. (1996). Referral patterns in ethnic-specific and mainstream programs for ethnic minorities and whi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56-64.
- Baozhen, X. (2007).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seeking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A qualitative explor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Bemak, F., & Chung R. C-Y. (2002).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ith refugee. In P. B. Pedersen, J. G. Draguns, W. J. Lonner, & J. E. Trimble (Eds.), *Counseling across cultures*, (5th ed., pp.209-232). Thousand Oaks, CA: Sage.
- Bratter, B. & Freeman, E. (1990). The maturing of peer counseling. *Generations*, 14(1), 49-52.

- Daiute, C., & Lightfoot, C. (2004). *Narrative analysis: Studying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s in society*. London: Sage Publications.
- de Vries, B., & Pettu B. J. (1992). Peer-counseling training: Analysis of personal growth for older adults. *Educational Gerontology, 18*, 381-393.
- Fagan, R. W. (1986). The use of volunteer sponsors in the rehabilitation of skid-row alcoholics. *J Drug Issues, 16*, 321-337
- Garcia, Y. E., Metha, A., Perfect, M. C., & McWhirter, J. J. (1997). A senior peer counseling program: evaluation of training and benefits to counselors. *Educational gerontology 23*(4), 329-344
- Giese-Davis, J., Bliss-Isberg, C., Carson, K., Star, P., Donaghy, J., Cordova, M. et al. (2006). The effect of peer counseling on quality of life following diagnosis of breast cancer: an observational study. *Psycho-Oncology, 15*, 1014-1022.
- Joanne, A. T. (2007). *Help-seeking attitude and counseling expectations as predictors of Bermudians' help-seeking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 Kate, F. A. J. (2002). *We're all foreigners here: What adult mentors learn from youth in urban schoo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 Khamphakdy-Brown, S., Nilsson, J. E., Russell, E. B. & Klevens, C. L. (2006). The empowerment program: an application of an outreach program for refugee and immigrant women.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8*(1), 38-47.
- Komiya, N., Good, G. E. & Sherrod, N. B. (2000). Emotional openness as predictor of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seeking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138-143.
- Lee, W. M., Blando, J. A., Mizelle, N. D., & Orozco, G. L. (2007).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counseling for helping professionals* (2nd). NY: Routledge. 31-34.
- Lieblich, A., Tuval-Mashiach, R., & Zilber, T. (1998). *Narrative research: Reading,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ousand Oaks Calif: SAGE Publications, Inc.
- Mowbray, C. D., Moxley, D. P., Thrasher, S., Bybec, D., McCrohan, N. & Harris, S. et al. (1996). Consumers as community support providers: Issues created by role intervention.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2*(1), 47-67.
- Riessman, C. K. (2005). 내러티브분석{Narrative Analysis}. (김원옥 외 역). 서울: 군자출판사. (원저 1993 출판)
- Stone, M. L., & Waters, E. (1991). Accentuate the positive: A peer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older adults. *Journal for Specialist in Group Work, 16*, 159-166.
- Tran, T. V., Manalo, V. M. & Nguyen, T. (2007).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length of residence and depression in a community-based sample of Vietnamese American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53*(1), 85-94.

원 고 접 수 일 : 2009. 9. 10
수정원고접수일 : 2009. 11. 9
게 재 결 정 일 : 2009. 11. 21

A Qualitative Study on the North Korean Defector Peer Counselor's Experience in Counseling

Kim, Young Kyung

Yonsei University

Kim Hyun Ah

Open Cyber University

In this paper, North Korean defector peer counselor's experience in counseling is studied.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the main method of research is the in-depth interview. The subjects of the interview are 9 North Korean defectors. For data analysis, narrative analysis, which is proposed by Lieblich, Tuval-Mashiach, & Zilber, has been used. There were 61 concepts, 23 subcategories and 8 categories extracted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ose 8 categories are as follows: peer counselor's view of North Korean defectors' awareness on counseling, peer counselor's attitude and role, peer counselor's requirement, peer counselor's resources, peer counseling issu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counseling style that North Korean defectors' preferring, condition precedents for improving the effect of North Korean defectors' counseling, peer counselor's view of South Korean counselors' tasks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counseling.

Key words : north Korean defectors, peer counseling, qualitative research, narrative analysis